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그렇게 믿고 싶다

늘 빙그레 웃기만 하는 녀석, 학교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에도 '뉘, 특별하…….'로 마무리하는 녀석, 점심시간 식당을 나서서 녀석이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스쳐 지나가 버린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6교시 수업으로 2차고사 시험 범위는 얼추 마무리된다. 녀석이 무슨 질문으로 나에게 다가올지가 오늘도 궁금하다.



박 여 범
음복중학교 · 시인 · 문학박사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폼사는 너무 어려워요? 이번 시험에서 빼 주시면 안 되나 염?"
"1차고사 100점이다, 이번 2차고사도 100점으로 마무리하기 쉽게 문제 내 주세요?"

큰소리로 간절하게 던지는 질문세례에 필한 가득 '폼사' 단원을 복습한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녀석들은 항상 질문의 유형이 비슷하다. 그가 막힌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도 "선생님, 폼사가 시험에 나와요? 할, 나는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라며 해맑게 웃는 녀석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아진다는 것이다.

"폼사가 시험 범위인지 몰랐다고? 폼사에서 교과서 있는 예문 그대로 문제를 많이 낼 것이라고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 해 주셨는지? 올 여범 선생님!"
"여범 선생님 전 다 이해했습니다. 체언, 용언, 관계언, 조사, 감탄사……"

익숙한 목소리다. 그런데 웬지 낯설다. 분명 녀석의 목소리다. 그렇지만 녀석이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다. 녀석은 모든 과목이 어렵다면서도 100점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녀석의 수업 시간 태도다. 대부분의 수업을 이리저리 고개를 휘두르며 '꿈나라 여행'에 바쁘다. 교과서도 깨끗하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대다수 교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그래서 시험이 마무리되고 녀석과 친밀하게 지내며 들여다보니, 정말 아이러니다. 다른 녀석들은 시험이 끝났다고 게임에 영화에 여행 이야기 화제다. 그러나 녀석은 음악을 들으며 수학문제지를 재미있게 풀어나고 있다. 알고 보니, 녀석은 마음에 두고 있는 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학과 영어 공부를 도와주며 나름 멋진 남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 무슨 공부방식이란 말인가? 학창시절 다양한 학습방법을 경험했지만 의외다. 수행평가 태도 점수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녀석은 이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아마도 녀석의 학습 태도에 커다란 계기가 없다면 변화는 쉽지 않을 듯하다.

점심시간, 녀석과 운동장을 거닐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대화에 응해주었다. 녀석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기본 생각으로 수업에 대한 태도와 학습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종회가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종회가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녀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고, 종회가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녀석이 나를 찾아왔기에 영어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녀석은 주저함 없이 불쑥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차분하게 설명을 마친 녀석의 입에서 조용하게 던져진 한 마디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여범 선생님,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
"바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학교

생활이에요. 편히 잠을 잘 수도 있고, 아이들과 웃으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학교거든요? 선생님은 제가 잠자고 놀기만 하니까 미워하셨죠?"

"그랬구나. 마음이 아프다. 진작 선생님에게 털어놓지 그랬나? 그 무거운 것을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하니?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주실 뻔했죠?"
"정말요?"
"그럼, 언제든 찾아오길……"

녀석을 보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녀석의 현실은 대다수 아이가 부러워하는 조건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15살이면 아직 어린 나이다. 그래서 녀석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다. 그래도 나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해결하고, 학교를 감옥이 아닌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에서 녀석의 희망을 보았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녀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헤어짐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늘 녀석과 함께 있다고 믿고 싶어졌다. 녀석이 언제나 달려와 "여범 선생님"을 부르며 환박웃음으로 함께 할 것 같다. 녀석 주변에 "00야", "00 선생님", "00 형", "00 누나" 등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무한한 그들이 함께하면 욕심일까?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

사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탄소법 개정안

전북의 탄소산업에 할 말이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보다 더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현실은 그게 아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 그대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법 개정안이 터럭거리고 있는 까닭이다. 그것도 응원군이 돼주리라 믿었던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섰으니 전혀 뜻밖이다. 예전에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약속했던 말들을 뒤집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은 더 발전해야 한다. 지난 여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때도 나왔던 말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내 탄소산업의 선두주자 자리를 위해서도 그렇다. 탄소산업에 관한 한 전북도는 그 어느 광역자치체보다도 먼저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전북 탄소산업의 규모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추진해온 역사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아직 길길이 멀다.

전북도는 전북의 탄소산업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해야 한다. 후발주자 지역인 다른 광역지자체가 한국 탄소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려고 욕심을 품고 있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전북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이 바로 그러하다. 전북 탄소산업의 역사가 십 수년인데도 그 발전상이 미흡하다. 오랜 세월의 공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기대할 만큼의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더욱 욕심을 내야 한다. 전북도가 탄소 소재 및 부품 분야 육성에 힘을 실어준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업군이 크지 않다면 전국 상용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전북의 탄소산업에 대해 이대로 관망하고 하니 물어볼 수가 없다. 백년짜리 사업이라며 홍보할 때만해도 관련기업 240개 유치와 3만5천명의 고용 창출을 말했었는데 말이다. 탄소산업의 현실을 보면 아쉬움 그 자체다. 탄소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전북도가 여러차례 강조하고 홍보했던 그대로 탄소산업은 도민의 오랜 관심사이다. 명실공히 백년 먹거리 사업이 되도록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더욱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현실

전북도는 생각해 생각을 더해야겠다.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 현상이다. 문제가 심각치 않다고 여러 번 지적했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도내 전체 인구 182만3천9백여명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36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20%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20%가 넘는 수치는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도 많이 불어난 것이다.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큰데 거주 인구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매우 난감하다. 청년 인구가 36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20%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20%가 넘는 수치는 지난해 같은 때와 비교해도 많이 불어난 것이다.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큰데 거주 인구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매우 난감하다. 청년 인구가 36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20% 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을 막자"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여야 한다. 얼마 전에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5%를 넘어섰으며 서울시장 당국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연보'의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령 인구만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올해는 앞에 밝힌대로이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젊음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따금 간헐적으로 관심을 갖고 책 말만 할 게 아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리다가는 180만 명대가 무너져 170만 명대로 전락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멕시코혁명 109주년 기념 퍼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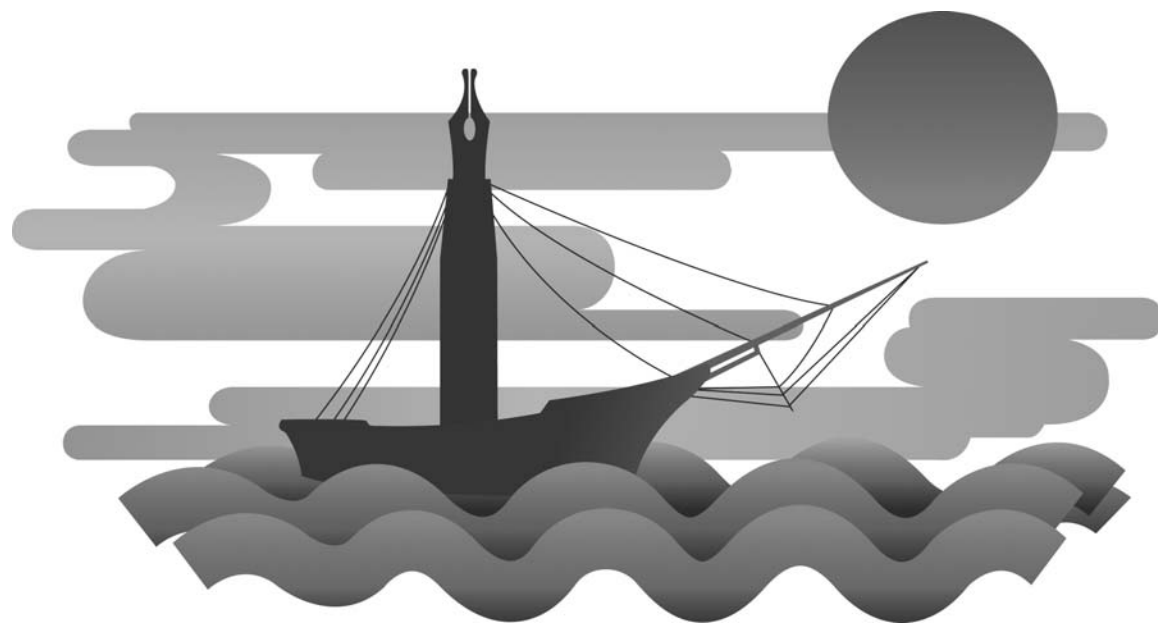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멕시코혁명 제109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열려 말에 탄 군인들이 멕시코 국기를 펼쳐 들고 행진하고 있다. 행사에는 1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당시 역사적 장면들을 재연했다.

서퍼들의 '성지' 포르투갈 나자레



20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해변 도시 나자레의 노스비치 절벽 꼭대기에 모인 사람들이 거대한 파도를 타는 서퍼들의 모습을 관람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